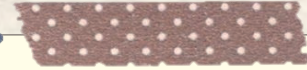


「 6월부터 8월까지, 예술과 식탁으로 채우는 계절의 기록 」

글 안현주
디자인 한려은



방학은 늘 길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몇 장면만 또렷하게 남아요. 이상하게도 기억에 오래 남는 날은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날보다 전시를 한 편 보고 근처에서 늦은 점심을 먹거나 조금 더 걸어서 카페나 강변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던 날들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여름 전시 기록은 '무엇을 볼까'에서 멈추지 않으려 해요.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월간 전시와 더불어 그 온기를 이어갈 식당이나 카페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으로 정갈한 한 끼를 담은 '식탁의 기록'이나 하루의 방점을 찍을 '달콤한 마무리'까지. 이 글이 여러분의 여름날에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기는 작은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 6월 - 방학의 첫 시작 」

6월의 전시는 방학이 시작되는 달인 만큼 너무 무겁거나 난해하기보다 시선을 환기하고 잠들어 있던 취향을 다시 작동시키는 전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6월의 싱그러운 공기와 닮은 공간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 《입체파 그룹전》 |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전시 | 63빌딩에 새롭게 동지를 튼 이곳은 프랑스 현대미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퐁피두센터'의 명작들이 준비합니다.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거장들의 파격적인 시선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라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는 전시이기도 하죠. 입체파 특유의 독특한 조형미와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의 풍경이 교차할 때, 익숙했던 일상이 조금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Tip | 63빌딩 내부는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붐빌 수 있어요. 여유롭게 한강 뷰와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면 평일 오전 시간대를 노력해보세요. 63빌딩 로비에서 전시장까지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는 사진도 놓치지 마세요!



식탁의 기록 | 전시 후에는 근처 일식당 ‘하하코식당’에서 계절 한정 메뉴인 ‘연어냉라멘’이나 ‘돈카츠냉라멘’으로 시원함을 채워보세요. ‘마라곰탄멘’으로 즐기는 이열치열도 빼놓을 수 없죠! 정갈한 일식이 주는 깔끔함은 전시 후 여운과도 잘 어울려요. 조금 더 색다른 맛을 원한다면 중식당 ‘이차강’에서 ‘제철 생선찜’이나 여름의 기운을 담은 ‘구수계’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달콤한 마무리 | 부드러운 푸딩이 유명한 ‘바이러닉 에스프레소 바’에서 ‘클래식 푸딩’과 ‘여의라떼’를 드셔 보세요. 또는 ‘부에노 63’의 ‘아이스 홍시 수정과’를 손에 들고 한강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6월의 바람은 피크닉을 즐기기에 더없이 적당하니까요! 두 곳 모두 전시장 및 식당과 가까워 어느 때든 편하게 들르기 좋습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모드 루이스의 사계절》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전시 |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색채를 좋아한다면 이번 6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모드 루이스의 사계절》을 놓치지 마세요! 영화 ‘내 사랑’의 실제 주인공인 화가가 그린 순수한 풍경들에서 잊고 있던 포근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술의전당은 대중적인 전시가 많이 열리는 만큼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안하게 입문할 수 있어 전시가 처음인 분들에게 더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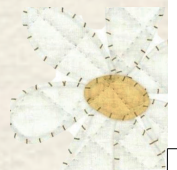
식탁의 기록 | 예술의전당 근처에서 가장 정겨운 장소를 꼽으라면 ‘백년옥’이 아닐까 싶어요. 오래된 동네 맛집다운 깊은 맛이 느껴지는 두부 전문 식당인데요. 여름인 만큼 두부도 좋지만, 바삭한 ‘해물파전’과 시원한 ‘도토리묵’에 ‘동동주’ 한 잔을 곁들이며 전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Tip | ‘백년옥’은 점심시간이면 인근 직장인과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여요. 웨이팅이 있다면 별도 운영하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부 요리인 만큼 반찬으로 나오는 걸절이가 일품이니 고소한 해물파전에 꼭 곁들여 드시길 추천해요!




달콤한 마무리 | 차분히 대화 나누기 좋은 ‘금옥당’에서 여름과 어울리는 이색적인 ‘진저 빙수’를 즐겨보세요. 미술관 내부에 위치해 이동이 편한 카페 ‘나인블럭’의 진한 커피도 전시의 여운을 느끼기에 좋아요. 여름의 열기에 조금 지쳤다면 ‘cafe de cen’의 ‘리얼 수박주스’ 한 모금으로 갈증을 기분 좋게 씻어내 보시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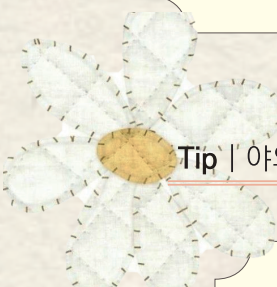
「 7월 - 본격적인 한여름 」

무더위가 정점에 달하는 7월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작품 속으로 깊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간절해지곤 해요. 습한 공기를 뒤로하고 들어선 전시장 특유의 서늘함이 반가운 7월의 전시를 소개합니다.


스페이스K 서울 《카우스(KAWS) 개인전》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32



전시 | 세계적인 팝아트의 거장 카우스(KAWS)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강렬한 색감과 재밌는 초대형 캐릭터 작품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쾌적함을 선물해 줘요. 특히 이곳의 높은 층고와 노출 콘크리트가 주는 서늘한 공기는 7월의 습기를 단숨에 잊게 합니다. 현대적인 건축 미관 덕분에 어디서 찍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Tip | 야외 옥상 정원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도 훌륭한 포토존이랍니다.



식탁의 기록 | 더운 여름, 강한 향신료가 더해진 멕시코 음식은 어떠신가요? '갓잇(GOD EAT)'에서 타코와 브리또, 과카몰리가 가득 담긴 '갓보울'을 즐겨보세요. 전시장 안에서 느꼈던 화려한 작품을 미각으로 이어가는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라임즙을 살짝 뿌린 신선한 고수와 불 향 가득한 고기가 어우러진 맛은 툭툭 튀는 카우스의 작품 세계와 묘하게 닮아서 전시의 즐거움이 식탁까지 이어져요.



달콤한 마무리 | 호주식 커피의 진수를 보여주는 ‘헤리스헤이스’는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성지와 같은 곳이죠! 고소한 우유의 풍미가 극대화된 ‘플랫 화이트’나 시그니처 메뉴인 ‘헤리스 라떼’ 한 잔을 마시며 전시장의 여운을 정리해 보세요. 달콤한 커피 뒤에 찾아오는 기분 좋은 허기를 채우고 싶다면 서울 3대 베이글 맛집으로 손꼽히는 ‘베이글리스트’를 추천합니다. 고소한 ‘잠봉뵈르 베이글’부터 단짠의 정석을 보여주는 ‘고르곤졸라 베이글’까지, 다채로운 종류의 베이글과 샌드위치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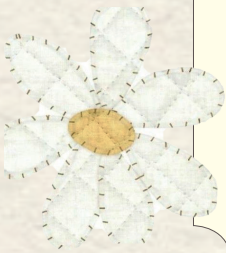
Tip | ‘베이글리스트’는 오후 늦게 가면 인기 있는 베이글이 금방 품절 되니 전시 관람 전에 미리 들러 수량을 확인하거나 포장 예약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들의 밥상》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시 | 많은 분이 전시하면 알고 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번 7월에 열리는 전시는 한국인의 식문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들의 밥상》입니다. 전시를 관람한 후에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인 ‘사유의 방’에 꼭 들러 반가 사유상을 마주해 보세요. 과거의 유물이 현재의 나에게 건네는 침묵의 위로는 7월의 번잡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줄 거예요!

Tip | ‘사유의 방’은 전시 관람의 하이라이트인 만큼 조용히 사색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카메라 셔터 소리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이곳의 암묵적인 매너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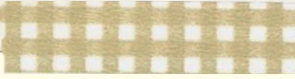
식탁의 기록 | 이촌동 로컬 맛집인 ‘스즈란 테이’는 정통 일본 가정식을 선보이는 곳이에요. 7월에는 단연 살얼음이 살짝 낀 육수에 적셔 먹는 ‘자루소바’나 탱글탱글한 면발의 ‘냉 우동’을 추천합니다. 함께 나오는 바삭한 모듬 튀김을 육수에 살짝 담가 먹으면 뱃속까지 시원해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달콤한 마무리 | 박물관 내부의 고즈넉한 공간인 ‘전통찻집’에서 거울못을 바라보며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련차’, ‘복숭아꽃차’, ‘벚꽃차’ 등 은은한 향을 머금은 여러 종류의 꽃차와 ‘모과차’, ‘수정과’ 등 전통차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에요. 차의 따뜻한 온기 그 자체가 하루의 훌륭한 침표가 되어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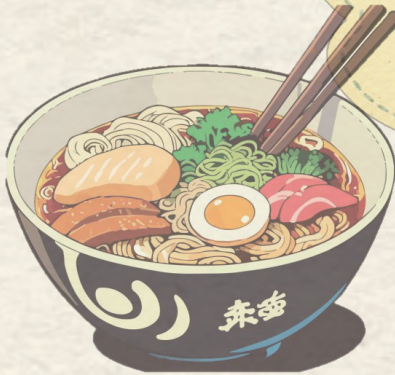
페로탕 서울 《Vivian Greven 개인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10

전시 | 세계적인 갤러리답게 감각적인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페로탕 서울에서 《Vivian Greven 개인전》이 열립니다. Vivian Greven의 전시를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매끄러운 질감의 회화와 부드러운 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전시가 위치한 장소 또한 하이엔드 예술의 정수를 맛본 뒤 도산공원 특유의 짙은 녹음을 즐기기에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탁의 기록 | 도산공원 인근의 '코이라멘'은 '마제소바'와 '매운 라멘'으로 활력을 충전하기 좋은 곳이에요. 이곳의 핵심 팁은 테이블마다 비치된 짜개로 마늘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알싸한 마늘 향이 진한 육수와 만나 풍미가 폭발할 때, 여름철 잃어버렸던 입맛이 되살아나는 기분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Tip | 도산공원 일대는 웨이팅 지옥이라 불릴 만큼 사람이 많아서 대기는 생각해 두셔야 해요. '코이라멘'에서 마늘을 짜 넣을 때, 처음에는 본연의 국물을 맛보고 절반 정도 남았을 때 마늘을 넣어야 두 가지 풍미를 모두 즐길 수 있어요!



달콤한 마무리 |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부케 드 빵'의 '생과일 찹쌀떡'을 추천합니다. 얇고 쫄득한 피 속에 부드러운 생크림과 싱그러운 과일, 다채로운 토핑이 어우러져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여름의 청량함이 입안 가득 터져 나와요. 과일 찹쌀떡 외에도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들이 가득하니 7월의 오후를 달콤하게 매듭짓고 싶다면 한 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 8월 - 계절의 끝을 천천히 붙잡으며 」

방학의 끝자락인 8월은 서두르기보다 조금 더 멀리, 혹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돼요. 지나가는 계절을 배웅하며 깊은 예술적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장소들을 추천할게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도호 개인전》 |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 **전시** | 경복궁과 이웃한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가장 아름답게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올여름의 정점을 찍을 역대급 전시인 《서도호 개인전》이 열립니다. 집과 공간을 반투명한 천으로 구현한 서도호 작가 특유의 거대한 설치 미술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동시에 깊은 사색을 끌어내죠.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Tip | 서도호 작가의 설치 미술은 보는 각도와 조명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멀리서 전체 샷을 찍고, 가까이 다가가서 천의 섬세한 질감을 디테일하게 찍어보세요.

식탁의 기록 | 삼청동의 고즈넉한 정취를 이어받아 ‘눈나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대표 메뉴인 살얼음 동동 뜬 ‘김치말이 국수’와 달짝지근한 ‘떡갈비’의 조합은 8월의 찌는 듯한 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해요!





달콤한 마무리 | 식사 후에는 한옥 마당을 품고 있는 카페 ‘차 마시는 뜰’에 들러보세요. 한옥과 잘 어울리는 한방 카페로 여러 종류의 차를 마실 수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이라면 시원하고 새콤한 ‘오미자 빙수’와 갓 찌내어 따뜻하고 포슬포슬한 ‘단호박 시루떡’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차가운 얼음과 따뜻한 떡이 만드는 의외의 조화는 입안 가득 기분 좋은 변주를 선물하거든요.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삼청동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먹는 디저트는 여름날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은 물론 지친 마음에도 평온을 되찾아 줄 거예요.

Tip | ‘차 마시는 뜰’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니 참고하세요!



국제갤러리 부산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개인전》
| 부산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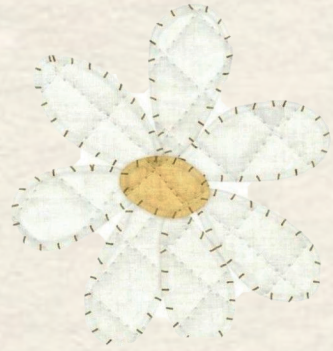
전시 | 태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가 던지는 질문은 묵직하면서도 강렬해요. 과거 와이어 공장이었던 국제갤러리(부산)의 거친 질감 속에 놓인 그의 데님 작업과 영상물들은 마치 현대적인 신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삶과 죽음, 기억과 소멸이 얽힌 그의 작품 세계를 보고 있으면 뜨거운 여름날의 열기마저 서늘한 철학적 사유로 변하고 말 거예요.





식탁의 기록 | 전시 보고 나서 배가 출출해질 땐 근처 ‘1983 영희네 솔뚜껍 삼겹살’로 달려가 보세요. 커다란 솔뚜껍 위에 두툼한 삼겹살이랑 김치, 미나리를 지글지글 굽는 비주얼부터가 벌써 시선을 사로잡아요. 특히 여기는 향긋한 미나리가 무제한이라는 사실! 고기 기름에 살짝 구운 미나리를 고기에 돌돌 말아 먹으면 전시 보느라 썼던 에너지가 한 번에 충전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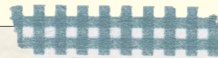
Tip | ‘1983 영희네 솔뚜껍 삼겹살’은 고기가 두툼해서 익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고기가 익기 전, 솔뚜껍 가장자리에 미나리를 살짝 숨만 죽여서 먼저 드셔 보세요. 향긋함이 입맛을 제대로 돋워줄 거예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 《입체파 그룹전》
|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달콤한 마무리 | 같은 단지 내에 있는 ‘테라로사’를 방문해 보세요! 오래된 공장의 골조를 그대로 살린 드넓은 공간은 전시의 확장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커피 좋아한다면 향긋한 ‘핸드드립 커피’를, 시원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상큼한 ‘허니 레몬 아이스티’나 시즌마다 바뀌는 ‘오늘의 아이스드립’을 추천해요. 천장이 높고 시원해서 앉아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기분 좋게 정리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이대원 개인전》 |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전시 |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이대원 작가가 그려낸 자연은 그야말로 색채의 잔치입니다. 점과 선으로 캔버스에 수놓은 과수원과 산과 들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죠. 덕수궁 석조전의 고전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진 그의 찬란한 화풍을 보고 있으면, 우리 곁의 자연이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여름 햇살이 투과하는 전시장 안에서 그의 작품은 더욱 눈부신 에너지를 뿜어낼 거예요!

Tip | 덕수궁 전시는 공궐 입장료 (1,000원)가 포함되지만,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 식탁의 기록 | 덕수궁 돌담길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며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르풀(Le Pul)’을 추천해요. 싱그러운 채소가 가득한 ‘샌드위치’와 ‘파니니’는 이대원 작가의 화사한 그림과도 무척 잘 어울리는 메뉴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라스 자리에 앉아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먹는 가벼운 식사는 전시장의 〈농원〉 연작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온 듯한 평화로움을 선사할 거예요!

Tip | ‘르풀(Le Pul)’은 내부 공간이 협소한 편이라 날씨가 좋다면 야외 테라스석을 강력히 추천해요. 유럽 노천카페에 온 듯한 사진을 건질 수 있거든요.



달콤한 마무리 | 정동길의 명물인 ‘리에제와플’에서 갓 구운 ‘와플’을 하나 들고 덕수궁 안을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진한 벨기에 초콜릿이나 달콤한 시럽이 올라간 와플 한 입은 전시 관람 후의 기분 좋은 피로를 단번에 날려줄 거예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무리를 원한다면 근처 ‘커피앤시가렛’으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도시 풍경을 감상하며 차가운 음료로 하루의 마침표를 찍는 것도 도심 속 휴가를 완성하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Tip | ‘커피앤시가렛’의 탁 트인 시티뷰를 가장 가까이서 즐기고 싶다면 조금 서둘러 방문하시길 추천해요! 통창 근처 좌석은 워낙 인기가 많아 금세 만석이 되곤 하니까요.



마지막 Tip)

모든 전시는 월요일이 휴관인 경우가 많으니 출발 전 네이버 지도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휴관 정보를 한 번 더 체크하는 센스! 여러분의 여름 기록이 완벽하도록 팁과 함께 알찬 발걸음 되시길 바라요.



「여름이라는 기록을 덮으며」

전시장 문을 열 때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와 정갈한 식탁 위로 피어오르던 대화들. 이 작은 가이드가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계절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절을 응원하며, 저는 더 매력적인 기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o^

